

로버트 치зом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2부 (B) :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다 (아모스 1:1-2:16)

아모스서 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 "아모스야,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2부 (B)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다(아모스 1:1-2:16).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을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의 정점인 8번째 신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주요 대상 집단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구절로 이어지는 신탁에서 본 원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요 초점이기는 하지만, 다른 신탁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역 전체, 모든 나라를 포함하여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표적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그분이 정하신 원칙들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인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이 그분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 기준을 어길 때 그 나라들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이 노아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근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동료 인간에게서 그 형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불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국가들이 그분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 기준을 어길 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민족들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을 원칙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지켜보시고, 민족들이 이 기본 원칙을 어길 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이는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나라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저지른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은 히틀러와 나치가 저지른 일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겪었고, 독일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종종 집단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넘어 더 큰 집단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모스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지금 그의 말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를 좋아할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과 빛의 선지자인데, 이제 그는, 네, 하나님의 주요 표적의 목에 올라가미를 걸었고, 그것을 잡아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심지어 네 가지 죄까지도 내가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 목록을 살펴보면,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네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은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팔고, 샌들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아마도 빛 때문에 사람들을 파는 것, 곧 빛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처럼 짓밟고, 압제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6절 후반부와 7절 전반부를 본질적으로 불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관료 체제에서 경제적 권력과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사건의 배경, 즉 북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8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처럼 왕을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자 주님의 주된 도구였는데, 이제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시민군과 군인 제도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왕이 이끄는 상비군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합니다. 그 왕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고, 군대, 상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9장에서는 그 말씀에서 다소 후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경고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8 장을 읽어보면 고대 근동 세계, 특히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전형적인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거대한 왕정을 수립할 것입니다.

왕실과 궁궐, 그리고 왕을 지탱해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왕은 당신들의 농작물을 가져갈 겁니다.

그는 당신 농작물의 일부를 가져갈 겁니다. 당신 자식들을 데려가서 강제 징집하고, 군대에서 싸우게 할 겁니다. 그들은 왕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일들을 할 겁니다.

그는 당신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결국 당신은 그토록 원했던 왕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왕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죠.

물론, 그는 거대한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왕의 관료 조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농업 중심 사회였고, 왕의 관료 조직이 모든 것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세금, 빚, 또는 빚을 갚음으로써 땅을 몰수 당하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고금리로 돈을 갈취하는 식으로 일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넘어선 거대한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은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사람들을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법원을 조작해서 자기들 눈에는 이 사람들이 유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희생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처럼 짓밟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자기 땅, 농장, 가축 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왕은 병사들을 위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보상을 해야 했고, 병사들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땅 없는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았고, 물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땅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땅입니다.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옥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와 독립을 누릴 만큼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그런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봇 과 그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서 울고 있었고, 이세벨은 "야, 네가 왕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나라 왕들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야, 네가 이것을 가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법정이 된 셈이고, 나봇의 재산은 날조된 혐의로 그에게서 빼앗겼고, 이제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행한 일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시합니다. 불의는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이고, 7절 후반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이용하고, 그래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게 들립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들이 같은 여자에게 가서 결과적으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므로 이것은 종종 성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같은 여자나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계층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매춘부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는 북왕국에도 존재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합 종교의 일부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주님과 함께 바알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보면 그들이 여자에게 간다는 뜻이니까요.

히브리어에는 “여자에게 간다”라는 관용구가 있는데, 이는 성적 접촉을 뜻하는 완곡어법이지만, 동사와는 다릅니다.

이 경우 bo 는 동사 bo 입니다 . 이것은 동사 halak 인데 , halak은 전치사 to와 함께 성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사를 성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반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기된 한 가지 해석은 이 동사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르제흐 라고 알려진 우상 숭배의 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 사실 이스라엘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서 아모스는 그것을 이름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마르 제흐 에 익숙하며 , 우리는 그것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며 조상을 숭배하거나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일종의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죽은 자와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엔도르의 마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일종의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당신의 지지 기반이자 이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학자 중 한 명이 말하길, 여기서 언급된 여자는 매춘부가 아니라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마르차흐에는 안주인이 있을 겁니다. 안주인이 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초대하는 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와의 성적 접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매우 나쁜 짓이겠지만, 같은 여자에게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마르차흐 연회를 상징합니다.

일종의 환유법이나 제유법입니다. 그녀가 거기서 당신을 맞이할 것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그것을 성적인 것으로 보든, 아니면 단순히 우상 숭배로 보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그들은 모든 제단 곁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습니다.

그들의 신의 집에서는, 실제로 신들로 번역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인데, 복수형이고 종종, 가장 흔하게는 유일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알은 그런 신들 중 하나이겠지만, 일단 당신이 다신교도가 되면, 당신은 다양한 신들을 행복하게 해야 그들이 신들의 집에서 벌금으로 취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종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마르 자이악과 함께 , 그들은 어떤 종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신을 NIV처럼 번역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일종의 혼합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교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고, 오히려 위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신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들은 신전의 제단 옆에 엎드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담보로 받은 옷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담보를 주겠소? 그게 당신의 옷이 될 거요."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어서 옷을 빼앗겼는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그 옷을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다의 야브네 요멜렛,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서 나온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옷을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아. 내가 그 옷을 필요로 한다"고 불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으니, 다른 사람들의 포도주도 훔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문제는 그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혼합주의든, 위선이든, 아니면 우상숭배든 말입니다. 그들은 유일신이신 야훼께 진실하지 않으며, 그들의 불의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 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보통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어 보셨다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궁핍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소녀에게 가는 것,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증명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를 되짚어 보십니다. "너희가 내게 반역했지만,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먼저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다."

아모리인과 가나안인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일부이지만, 서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먼저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을 멸망시켰다.

그는 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싸우던 날, 그는 모든 것을 던지고 적군에게 우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먼저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했지만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의 아들들인 아낙 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 됩니다.

네 자식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키가 크고 위대한 전사들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위쪽 열매를, 아래쪽 뿌리를 파괴했다.

주님은 그들을 나무에 비유하시고,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보다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는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복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돌아가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돌보셨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여기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베풀었다. 나는 또한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시르인들을 세웠다. 나시르인이란 삼손처럼 주님께 헌신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을 보라.

나시르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예언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이 서약을 어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지는, 실제로 그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따라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나시르인들이 헌신한 일을 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입 다물고 예언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네 번째 범죄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만약 뭔가 말할 때마다 네 가지를 세어 본다면, 그 계산법을 사용하면 여기서는 아홉이나 열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가 왜 다른 목록들을 짧게 남겨두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 이 나라들을 대조하고, 3장 초반에 말씀하실 내용, 즉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할 겁니다. 목록을 읽어보면 이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만, 임산부를 편하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이 구절의 원리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심판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수신자, 즉 어떤 사람이나 나라에게 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고발이 있습니다. 당신이 벌을 받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고발이죠.

이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심판의 선고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고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심판받는 이유와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는 이 결과에 개입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스 베스터만과 같은 포럼 비평가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연설 형태를 연구했고, 심판의 연설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래서 비난, 선포, 그리고 선포 안에서 주님은 자신의 개입을 선포하시고, 그 개입의 결과도 묘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13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NIV는 "자, 내가 너희를 쳐부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게 합리적인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네 발 아래를 부수겠다. 즉, 널 부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곡식을 실은 수레가 찌그러지듯이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농업 이미지를 좋아해요 . 탈곡장 같은 거요. 그러니까, 곡식을 실은 수레를 떠올리는 거죠.

탈곡이 끝났고, 이제 우리는 곡식을 거두어, 어찌면 타작 마당으로 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압살하실 것이고, 그분은 그들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본 적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 수레가 너를 압살할 테니, 그 길에서 비켜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분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노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내가,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부터 16절까지, 그는 이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방어를 위해 군대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거대한 왕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땅을 내려준 모든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일반 백성에게서 물자를 징발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그들은 군대에 의존할 것입니다 . 하지만 군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목하십시오.

빠른 자는 도망칠 수 없고, 빨리 달리는 자는 도망칠 수 없다. 강한 자는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전사는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절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군대에는 보병, 말과 전차, 그리고 궁수와 궁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미술에서도 궁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발 빠른 군인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기병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아무리 용감한 전사라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 의 말씀이다 . 옷을 벗기 시작할 때, 어찌면 더 빨리 도망가기 위해 어느 정도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신탁에 7-8을 사용했고, 3-4를 사용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록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나열하실 수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주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것들을 세어 보세요.

14절에 세 가지, 15절에 세 가지, 그리고 16절에 “그날에 가장 용감한 전사라도 별거벗고 도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됩니다. 심판의 결과를 묘사하면서 그는 일곱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묘사하는데, 이 문화와 그 문학적 기법과 관용어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완전한 목록임을 알 것입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일부는 겹치지만, 그는 군사적 패배를 일곱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패배가 될 것이라는 요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중을 함정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이 그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시는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음 두 구절에서 제가 제시하는 원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신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명령을 어긴 민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신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교도 세상을 성급하게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이교도들의 죄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교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탈곡하고, 노예 무역을 하고, 납치해서 노예로 팔고, 조약을 어기고,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는 이교도 세상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지 보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일종의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짓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유다 에 와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이스라엘도 같은 짓을 더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마르세이크 연회에 가는 거잖아. 애들아, 이 사람들 돈 값을 놔들이잖아.

값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 그들이 담보로 내놓은 것은 무엇이든 제가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합법적인 권리죠. 그들의 맥락에서라면, 그들은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르세이크까지 내려가 볼까요 .

네,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의 옷과 포도주를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과 나시르인들을 무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 광신도들이니까요.

아시죠,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그냥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시르인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변 세상의 어둠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빛으로 빛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쾌해할 거예요. 우리는 "난 그런 짓 안 할 거야. 아기를 죽이지 않을 거야."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음, 바로 연결해 보죠. 당신은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당신은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독선적이 되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충실한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정한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이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어떤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두십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두 장의 제목을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다음 섹션의 제목은 "구원 역사가 풀리다"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해 유배 생활에서 이끌어 내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가 역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노예 생활로, 유배 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 장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두 구절은 일종의 하위 범주로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모든 내용은 2장 6절부터 16절까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의 개요가 다소 임의적일 수 있지만,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작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장 구분을 3장 2절 뒤에 넣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연관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서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

자, 이것은 방금 읽은 내용과 관련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온 가족, 온 족속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유다도 포함됩니다. 유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일종의 선지자가 되었으니 아마도 이 말씀의 일부를 반복해서 유다 백성에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장 2절에서 "너희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바위를 먼저 언급합니다. 히브리어 어순대로 '너희만'을 '내가 알았노라'고 하셨는데, 그는 '알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너희만 내가 알았노라.

모든 민족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만 상대하시는 고립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 또는 '인식하다' 등으로 번역하는 동사 '야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번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다른 영어 동사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다'는 특별한 위치를 인식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NIV에서는 '선택된'으로 번역했고, 저는 이것이 '야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너뿐이다'는 '내가 너를 특별한 방식으로만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알고 있다. 내가 노아를 통해 지시하고 명령한 것 외에도, 나는 너희를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했다. 나는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만 내가 택했습니다. 너희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알다'라는 단어의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들은 아버지 엘리 밑에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일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섬깁니다. 그들은 주님을 압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주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들이 주님을 자신들에게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는데, 이제 다시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일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시야, 우리가 의로운 왕으로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을 기억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는 너무 작고 늦은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 때문에 백성에 대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는 기본적으로 정의에 관심이 있었고, 과부와 고아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시행했고, 정의의 옹호자였으며, 과부와 고아의 옹호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취약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잃었고, 당신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립니다.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근동 전역에서 왕들은 과부와 고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탐욕에 빠져 거대한 왕실 관료 체제를 만들었을 때는 항상 그렇지
않았지만, 당시 문화권의 왕권 이상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는 수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주님을 알았을까요? 단순한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우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항상 정신적 자각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당신만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특별한 방식으로 제 권위 아래 두고 있으며, 당신의 삶의
방식을 인도할 언약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알코
임’(al-qoyim)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너희만을 특별히 알고 택하였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문자 그대로
너희에게 벌하리라.

그리고 그 방문은 히브리어 관용어로, ‘벌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내가 벌할 것이다. 네 모든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죄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는 ‘아본’인데, 네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논리를 보세요. 2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이교도들이 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시점에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다.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들에 대한 제
원칙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권면의 근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원리의 두 번째 부분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촛대를 잃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별을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제가 이 책의 개요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누가 이들을 초대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북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누구를 초대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바산의 암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암소들은 왜 그렇게 살찐 걸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암소들을 계속 발전시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치즈 박사가 아모스서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2부(B),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다—아모스 1:1-2:16.